

## 한국판 사회공포증과 불안 검사의 타당화 연구

김 남 재<sup>†</sup>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측정하는 도구인 사회공포증과 불안 검사(SPAI)를 번안하여 한국판 SPA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한국판 SPAI는 높은 내적합치도 계수를 보였고, 문항-총점간 상관은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며, 검사 재검사 신뢰도도 높음을 보여주는 등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SPAI는 2요인 구조를 갖으며, 2요인은 사회공포증 소척도와 광장공포증 소척도에 각각 일치하였다. 한국판 SPAI와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한국판 SPAI는 한국판 SAD, 한국판 IAS, 한국판 FNE 등 다른 사회불안 측정 도구와 유의미하게 상관되었다. 그리고 한국판 SPAI는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 집단과 사회불안이 낮은 대학생 집단을 잘 변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판 SPAI가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평가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가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 사회공포증, 신뢰도, 타당도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남 재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19  
FAX : 02-901-8303 / E-mail : kimnj@duksung.ac.kr

사회불안(social anxiety)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로서, 개인의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다.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은 일반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의 하나이다(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man, 1992). 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율이 13.3%로 보고되었으며(Kessler, McGonagle, Zhao, Nelson, Hughes, Eshelman, Wittchen, & Kendler, 1994), 프랑스에서는 14.4%의 평생 유병율이 보고되었다(Weiller, Bissierbe, Boyer, Lepine, & Lecrubier, 1996). 아직 정확한 통계치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대등한 비율의 사람들이 사회공포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사회공포증은 다른 불안장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다(Liebowitz, Gorman, Fyer, & Klein, 1985).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은 1980년에 와서야 비로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DSM-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 포함되었다(Rapee, 1995).

사회불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여러 종류의 자기보고형 척도들이 개발되었다. Watson과 Friend(1969)는 사회적 회피 및 불안감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를 개발하였고, Leary(1983a)는 사회적 불안 척도(Interaction Anxiety Scale: IAS)를 개발하였다. 이 사회불안 측정 도구들은 사회공포증을 처음으로 진단범주에 포함시킨 DSM-III 발행 전에 개발된 것들이다.

SAD(Watson & Friend, 1969)는 사회불안의 측정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왔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불안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평가 도구가 임이 시사되었다(Heimberg, Hope, Rapee, & Bruch, 1988; Turner & Beidel, 1988; Turner, McCanna, & Beidel, 1987). 그러나 Mattick과 Clarke(1998)는 SAD

가 사회공포증 장애의 중요한 증상의 하나인 주시 두려움(scrutiny fear)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DSM의 사회공포증 진단준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 받는 사회상황에 대한 두려움, 사회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 및 회피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Turner 등은 SAD가 DSM의 진단범주인 사회공포증 환자를 감별 진단하는 도구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Turner & Beidel, 1988; Turner et al, 1987). 몇몇 연구들에서 SAD 점수가 사회공포증 집단과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일반불안장애 등 다른 불안장애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지 못 한다고 시사되었다(Oei, Kenna, & Evans, 1991; Turner et al., 1987). 그러므로 SAD가 사회불안을 타당하게 측정하지만, 사회공포증을 진단하는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IAS는 회피행동 등의 행동적 반응을 배제하고, 인지적-정서적 반응만으로 보는 사회불안의 정의에 입각하여 개발되었다(Leary, 1983a). Leary와 Kowalski(1993)는 IAS가 대면적인 사회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불안을 타당하게 측정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IAS는 사회불안의 유형 중 대면적인 대인관계 같은 교호적(contingent) 사회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따라서 IAS는 청중 앞에서 연설할 경우와 같은 비교호적 사회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찰되거나 주목을 받을 때 경험하는 두려움은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찰되는 사회 상황에서 경험하는 주시 두려움은 사회공포증의 중요한 증상이다(Mattick & Clarke, 1998). 그리고 IAS는 사회공포증의 중요한 진단준거인 회피행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IAS의 구성을 고려해 볼 때, IAS는 사회공포증을 진단하는 평가 도구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Beidel, Turner 및 Dancu(1985)는 사회불안의 반

응으로 높은 생리적 각성 수준, 타인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 그런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및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행동을 들었다. 즉 사회불안의 정의에 위협적 사회 상황에 대한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 등의 네 가지 반응 조합이 포함되어 있다. Beidel 등(1985)의 이러한 정의는 Leary 등의 사회불안에 대한 정의와는 다른 것으로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주시 두려움, 불안감 및 회피행동 등을 모두 포함한 DSM의 사회공포증 진단준거와는 잘 부합되는 것이다. 사회공포증을 진단하는 평가 도구는 사회공포증의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및 행동적 차원의 세부 특징들을 고려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여러 사회상황에서의 행동을 포함해야 한다(Turner, Beidel, Dancu, & Stanley, 1989).

Turner, Beidel 등(1989)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회공포증을 진단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도구로서 사회공포증과 불안 검사(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SPAI)를 개발하였다. SPAI는 잠재적으로 두려움을 유발하는 여러 사회 상황에 걸쳐서 인지적, 행동적 및 신체적 차원의 증상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즉 SPAI는 DSM에 기술되어 있는 사회공포증의 중요한 진단준거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되었다.

Turner, Beidel 등(1989)은 사회불안 관련 검사들 및 DSM-III의 사회공포증 진단준거를 바탕으로 하여 예비문항들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32문항의 사회공포증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DSM-III의 광장공포증 진단준거를 바탕으로 하여 13문항의 광장공포증 척도를 추가하였다. 광장공포증 척도는 공황발작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불안감을 배제하는 억제변인으로 사용된다. SPAI의 이러한 구성은 사회공포증과 다

른 불안장애를 감별 진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SPAI 점수는 사회공포증 소척도(subscale) 점수에서 광장공포증 소척도 점수를 감하여 산출된다. 즉 SPAI 점수는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에서 광장공포증 소척도 점수를 감한 차이점수를 말한다.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에서 광장공포증 소척도 점수의 차이점수로 SPAI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불안장애들 사이의 증첩, 특히 사회공포증과 광장공포증 사이의 증첩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반영한 것이다(Turner, Beidel, et al., 1989). SPAI 점수를 차이점수로 산출함으로써, SPAI 점수는 사회불안의 핵심요소인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불안감만을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SPAI의 타당도를 알아본 여러 연구들에서, SPAI는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로서 적절한 구성타당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Beidel, Borden, Turner, & Jacob, 1989; Beidel, Turner, Stanley, Dancu, 1989; Clark, Turner, Beidel, Donovan, Kirisci, & Jacob, 1994; Osman, Barris, Haupt, King, Osman, & Slavens, 1996; Osman, Barris, Aukes, & Osman, 1995; Turner, Stanley, Beidel, & Bond, 1989). 또한 SPAI는 사회공포증 집단의 치료에서 보이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도구임이 시사되었다(Beidel, Turner, & Cooley, 1993; Hofman, 2000).

사회공포증이 DSM의 진단범주에 포함된 후에 개발된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평가하는 다른 도구로는, Mattick과 Clarke(1989, 1998)가 개발한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와 사회적 상호관계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가 있다. SPS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을 평가하며, SIAS는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평가한다(Mattick & Clarke, 1998). SPS와 SIAS의 타당도를 알아본 연구들에서, SPS와 SIAS는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타당하게 평가하는 측정 도구임이 시사되었다(Gore & Parker, 2002; Heimberg, Mueller, Holt, Hope, & Liebowitz, 1992; Mattick & Clarke, 1998).

사회공포증은 종종 다른 정신장애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불안장애들과 동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한 역학적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집단의 49%가 광장공포증을 수반하는 공황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Brunello, Boer, Judd, Kasper, Kelsey, Lader, Lecrubier, Lepine, Lydiard, Mendlewicz, Montgomery, Racagni, Stein, Wittchen, 2000). 이렇게 동시발병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공포증과 다른 불안장애를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회공포증과 다른 불안장애, 예컨대 광장공포증을 수반하는 공황장애를 변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다(Barlow, 1988; Liebowitz, Gorman, Fyer, & Klein, 1985). DSM-IV(APA, 1994)에서도 사회공포증을 광장공포증을 수반한 공황장애 또는 광장공포증으로부터 감별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회공포증을 평가하는 심리검사는 사회공포증과 다른 불안장애를 효율적으로 감별 진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urner, Beidel 등(1989)이 SPAI를 개발한 목적의 하나는 사회공포증 집단과 다른 불안장애 집단을 감별 진단하려는 것이었다. Peter(2000)의 연구에서 SPAI가 이런 목적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Peter(2000)가 SPAI, SPS 및 SIAS를 비교한 연구 결과, SPAI가 SPS와 SIAS에 비해 사회공포증과 광장공포증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공황장애를 더 잘 감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SPAI와 SPS 및 SIAS는 모두 사회불안과 사

회공포증을 타당하게 측정한다(Ries, McNeil, Boone, Turk, Carter, & Heimberg, 1998). 그리고 세 척도는 모두 사회공포증의 치료 효과도 민감하게 측정한다(Cox, Ross, Swinson, & Dorenfeld, 1998). 그런데 사회공포증을 공황장애나 광장공포증 등의 다른 불안장애로부터 감별 진단하는 목적일 경우에는, SPAI가 SPS와 SIAS에 비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Peter, 2000).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사회불안 측정 도구들은 대체로 외국에서 개발된 사회불안 척도들을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것들이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은 Watson과 Friend(1969)의 SAD를 번안하여, 한국판 SAD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김남재(1995)는 Leary(1983a)의 IAS를 번안하여, 한국판 IA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SAD나 IAS는 사회공포증이 DSM의 진단범주에 포함되기 이전에 개발된 측정 도구로서, 사회공포증을 진단하는 평가 도구로서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런 적절성 문제가 한국판 SAD나 한국판 IAS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김향숙(2001)은 사회공포증이 DSM의 진단범주에 포함된 이후에 개발된 SPS와 SIAS(Mattick & Clarke, 1989, 1998)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바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사회불안 평가 도구들은 모두 사회불안을 타당하게 측정하지만, 사회공포증을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국내에서도 DSM의 진단범주인 사회공포증을 효율적으로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사회불안 척도가 개발되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SPAI(Turner, Beidel, et al., 1989)는 DSM-III의 사회공포증 진단준거를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사회공포증과 다른 불안장애들을 감별 진단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회불

안 척도들에 비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연구들에서 시사된 SPAI의 이러한 유용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SPAI(K-SPAI)를 개발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불안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DSM의 진단범주인 사회공포증을 효율적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SPAI의 한국판을 만들어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한국판 SPAI의 내적합치도, 문항-총점간 상관, 요인구조 및 다른 사회불안 측정 도구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소재 2개 대학, 지방소재 1개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한국판 SPAI, 한국판 IAS, 한국판 SAD 및 한국판 FNE를 한 책자로 묶어서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중에서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401명(남자 192명, 여자 209명, 평균연령 21.98, 표준편차 2.13)의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한국판 SPA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소재 2개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2주 간격으로 SPAI를 두 번 실시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피험자들에는 앞의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두 번의 검사에 모두 참여하고, 모든 문항에 답한 96명(남자 47명, 여자 49, 평균연령 21.43, 표준편차 1.72)의 자료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한국판 SPAI의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소재 여자대학생들에게 한국판 SPAI와 한국판 SAD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피험자들에는 앞의 두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중 모든 문항에 충실히 응답한 118명(모두 여자, 평균연령 21.06, 표준편차 1.58)의 피험자들에 대해, SAD 점수 상위 25%를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 하위 25%를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불안장애 면접 목록 개정판(Anxiety Disorders Interview Schedule-Revised: ADIS-R; DiNardo, Barlow, Cerny, Vermilyea, Vermilyea, Himadi, & Waddell, 1985)을 번안하여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의 피험자에게 ADIS-R을 사용하여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과 진단은 임상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임상심리전문가가 담당하였다. 이 개별면접에는 SAD 상위 25%에 속한 피험자들 중 26명이 참여하였다. 면접 결과 이중 21명이 DSM-III-R(APA, 1987)의 사회공포증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이들을 사회공포증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사회공포증 집단에 속한 대학생들 중에 사회공포증 문제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경험을 가진 피험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한국판 SPAI의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공포증 집단(N=21, 모두 여자, 평균연령 21.11, 표준편차 1.54)과 사회불안이 낮은 정상집단(N=29, 모두 여자, 평균연령 21.03, 표준편차 1.63) 간에 SPAI 점수를 비교하였다.

### 측정도구

#### 사회공포증과 불안 검사

Turner, Beidel 등(1989)이 개발한 SPA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PAI의 번안 과정에서 문항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면서 그 내용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영어 문화권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심리학 교수 2명과 연구자가 각각 번안하고 합의하여 최종 척도 문항을 구성하였다.

한국판 SPAI는 4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형 척도로서, 32개 문항의 사회공포증 소척도와 13개 문항의 광장공포증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PAI의 문항들은 사회 상황에서의 경험 빈도를 1(전혀 경험하지 않는다)에서 7(항상 경험한다)까지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공포증 소척도에서 17개 문항들은 네 가지 구체적인 사회 상황(낯선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이성, 일반사람)에 각각 평정하고, 그 평균을 문항값으로 하는 문항들이다(표 1의 12~28번 문항). 2개 문항은 사회 상황에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생각이나 걱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각각 평정하고, 그 평균을 문항값으로 한다(표 1의 29, 30번 문항). 2개 문항은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문항으로, 땀 흘림, 자꾸 소변이 마려움, 가슴 두근거림, 얼굴이 붉어짐, 떨림 등의 신체적 증상에 각각 평정하고, 그 평균을 문항값으로 한다(표 1의 31, 32번 문항). 사회공포증 소척도의 나머지 11개 문항들(표 1의 1~12번 문항)과 광장공포증 소척도 13개 문항들(표 2의 33번~45번 문항)은 하나의 7점 척도에 평정하게 되어 있다.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는 32문항의 합에서 문항수 32를 감하여 산출된다. 광장공포증 소척도 점수는 13문항의 합에서 문항수 13을 감하여 산출된다. SPAI 점수는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에서 광장공포증 소척도 점수를 감한 차이점으로 산출된다.

#### 대인관계 불안 척도

Leary(1983)가 개발한 대인관계 불안 척도를 김남재(1995)가 번안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다. IAS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IAS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로 .89이었다

#### 사회적 회피 및 불안감 척도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감 척도를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한국판 SAD를 사용하였다. SAD는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SAD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로 .93이었다.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FNE)에서 Leary(1983b)가 12 문항만 뽑아서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다시 개발한 단축형 FNE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한국판 FN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FNE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로 .90이었다.

## 결 과

### 신뢰도

#### 내적 합치도

SPAI는 사회공포증 소척도와 광장공포증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척도 별로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국판 SPAI의 사회공포증 소척도와 광장공포증 소척도에 대해 각각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사회공포증 소척도의  $\alpha$ 계수는 .96이고, 광장공포증 소척도의  $\alpha$ 계수는 .88이었다.

#### 문항-총점간 상관

각 문항별로 산출한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 계수가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문항들 중 사회공포증 소척도에 속하는 12

표 1. SPAI 사회공포증 소척도의 교정된 문항 총점간 상관

문	항	상관계수
1.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사회적 상황에 들어갈 때 불안을 느낀다.	.48
2.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회적 상황에 들어갈 때 불안을 느낀다.	.60
3.	사회적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때 불안을 느낀다	.61
4.	사회적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시작해야 할 때 불안을 느낀다.	.61
5.	청중 앞에서 연설할 때 불안을 느낀다.	.61
6.	소수의 비공식 모임에서 말을 할 때 불안을 느낀다	.49
7.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피한다.	.48
8.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친목모임 도중에 나온다.	.44
9.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불안을 느낀다.	.67
10.	사회적 상황에서 말할 때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변한다.	.48
11.	다른 사람이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47
12.	다음 사람들과의 소규모 모임에서 불안을 느낀다.	.79
13.	다음 사람들과의 대규모 모임에서 불안을 느낀다.	.76
14.	다음 사람들과 식당이나 술집에 함께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72
15.	다음 사람들과 처음 보는 상황에 있을 때 불안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76
16.	다음 사람들과 대립하는 상황에 있을 때 불안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68
17.	다음 사람들과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불안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68
18.	다음 사람들과 친밀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불안을 느낀다.	.59
19.	다음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 불안을 느낀다	.79
20.	다음 사람들과 업무에 관해 이야기할 때 불안을 느낀다.	.69
21.	다음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작할 때 불안을 느낀다.	.78
22.	다음 사람들과 몇 분 이상 상대할 때 불안을 느낀다	.74
23.	다음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불안을 느낀다	.70
24.	다음 사람들 앞에서 글을 쓰거나 타이프를 칠 때 불안을 느낀다.	.59
25.	다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불안을 느낀다.	.79
26.	다음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거부할 때 불안을 느낀다.	.60
27.	다음 사람들이 있는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70
28.	다음 사람들이 있는 사회적 상황을 도중에 떠난다	.59
29.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한다	.67
30.	사회적 상황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한다.	.69
31.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을 경험한다.	.54
32.	사회적 상황에 있을 때 다음을 경험한다.	.60

표 2. SPAI 광장공포증 소척도의 교정된 문항 총점간 상관

문	항	상관계수
33. 집에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44
34. 낮은 곳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61
35. 대중교통(버스, 기차, 비행기 등)을 이용할 때 불안을 느낀다.		.59
36. 도로를 횡단할 때 불안을 느낀다.		.61
37. 사람들이 많은 곳(상점, 교회, 극장, 식당 등)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62
38. 넓은 야외공간에 있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된다.		.65
39. 폐쇄된 곳(엘리베이터, 터널 등)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58
40. 높은 곳(예, 높은 빌딩)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52
41. 긴 줄에서 기다릴 때 불안을 느낀다.		.58
42. 쓰러질까 두렵기 때문에 무엇인가 잡아야만 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57
43. 집을 떠나 공공장소에 갈 때는 식구나 친구와 함께 간다.		.48
44. 차를 탈 때 불안을 느낀다.		.66
45. 곤경에 처하게 될까봐 어떤 장소에는 가지 않는다		.54

번~32번 문항들은 한 문항에서 여러 사항들에 대해 각각 응답하고, 그 평균치를 문항값으로 하게 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사회공포증 소척도 문항들은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를 총점으로 하여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광장공포증 소척도 문항들은 광장공포증 소척도 점수를 총점으로 하여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사회공포증 소척도의 문항들의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는 .47 ~ .79( $p < .001$ )이었으며, 광장공포증 소척도의 문항들의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는 .44 ~ .69( $p < .001$ )이었다.

#### 검사-재검사 신뢰도

대학생 96명을 대상으로 하여 2주 간격으로 검사와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SPAI 점수는 사회

공포증 소척도 점수에서 광장공포증 소척도 점수를 감한 차이점수이다. SPAI 점수로 산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 $p < .001$ )이었다. 소척도 별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사회공포증 소척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7( $p < .001$ )이고, 광장공포증 소척도는 .81( $p < .001$ )이었다.

#### 타당도

##### 요인구조

한국판 SPAI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401명의 자료에 대해 주축분해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모두 7개가 추출되었다. 요인1은 고유치가 16.68(설명변량 37.06%), 요인2는 고유치가 3.67(설명변량 8.16%), 요인3은 고유치가 2.12(설명변량 4.71%), 요인4는 고유치가 1.74



표 3. SPAI의 요인계수 행렬

문	항	요인 1	요인 2
12.	다음 사람들과의 소규모 모임에서 불안을 느낀다.	.864	-.094
13.	다음 사람들과의 대규모 모임에서 불안을 느낀다.	.834	-.086
21.	다음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작할 때 불안을 ...	.826	-.036
19.	다음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 불안을 느낀다.	.805	.028
25.	다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불안을 느낀다.	.799	.018
15.	다음 사람들과 처음 보는 상황에 있을 때 불안을 느끼고 ...	.771	.032
22.	다음 사람들과 몇 분 이상 상대할 때 불안을 느낀다.	.755	.023
14.	다음 사람들과 식당이나 술집에 함께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727	.039
17.	다음 사람들과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불안을 느끼고 ...	.716	-.023
16.	다음 사람들과 대립하는 상황에 있을 때 불안을 느끼고 ...	.714	-.017
9.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불안을 느낀다.	.687	-.027
5.	청중 앞에서 연설할 때 불안을 느낀다.	.687	-.116
3.	사회적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때 ...	.672	-.097
27.	다음 사람들이 있는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649	.127
20.	다음 사람들과 업무에 관해 이야기할 때 불안을 느낀다.	.645	.114
23.	다음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불안을 느낀다.	.641	.138
4.	사회적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시작해야 할 때 불안을 ...	.634	-.033
30.	사회적 상황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한다.	.615	.148
29.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	.612	.139
26.	다음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거부할 때 불안을 느낀다.	.606	.036
2.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회적 상황에 들어갈 때 불안을 느낀다.	.596	.032
18.	다음 사람들과 친밀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불안을 느낀다.	.577	.067
11.	다른 사람이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559	-.139
24.	다음 사람들 앞에서 글을 쓰거나 타이프를 칠 때 불안을 ...	.555	.095
28.	다음 사람들이 있는 사회적 상황을 도중에 떠난다.	.507	.179
7.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	.500	-.041
10.	사회적 상황에서 말할 때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변한다.	.483	-.017
32.	사회적 상황에 있을 때 다음을 경험한다.	.457	.279
1.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사회적 상황에 들어갈 때 불안을 ...	.457	.053
6.	소수의 비공식 모임에서 말을 할 때 불안을 느낀다.	.452	.070
8.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친목모임 도중에 ...	.442	-.014
31.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을 경험한다.	.408	.258
44.	차를 탈 때 불안을 느낀다.	-.039	.728
39.	폐쇄된 곳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109	.683
42.	쓰러질까 두렵기 때문에 무엇인가 잡아야만 한다고 느낄 ...	-.076	.645
38.	넓은 야외공간에 있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된다.	.122	.637
41.	긴 줄에서 기다릴 때 불안을 느낀다.	.066	.630
36.	도로를 횡단할 때 불안을 느낀다.	.049	.615
37.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130	.600
3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안을 느낀다.	.043	.597
34.	낮선 곳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153	.562
40.	높은 곳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037	.544
45.	곤경에 처하게 될까봐 어떤 장소에는 가지 않는다.	.099	.532
33.	집에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036	.494
43.	집을 떠나 공공장소에 갈 때는 식구나 친구와 함께 간다.	.047	.486
고유치		16.15	3.09
설명변량 (%)		35.90	6.85

(설명변량 3.88%), 요인5는 고유치가 1.44(설명변량 3.12%), 요인6은 고유치가 1.17(설명변량 2.59%), 요인7은 고유치가 1.01(설명변량 2.25%)이었다.

추출되는 요인 수에 대한 준거 (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와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적용해 볼 때, SPAI의 요인분석에서 2개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요인을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다. 요인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사각 회전하였으며, 그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1은 고유치가 16.15로서 전체변량의 35.90%를 설명하였으며, 요인2는 고유치가 3.09로서 전체변량의 6.85%를 설명하였다. 요인1과 요인2를 합하여 전체변량의 42.75%를 설명하였다. 요인1과 요인2 간의 상관은 .50 ( $p < .001$ )이었다. 요인1에는 사회공포증 소척도에 속하는 32개 문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요인2에는 광장공포증 소척도에 속하는 13개 문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

한국판 SPAI가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불안을 측

정하는 도구로 알려진 한국판 IAS, 한국판 SAD 및 한국판 FNE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4에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SPAI 점수는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에서 광장공포증 소척도 점수를 감한 차이점수이다. SPAI 점수는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IAS와는 .72( $p < .001$ ) SAD와는 .68( $p < .001$ )의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한편, FNE와는 .37의( $p < .001$ ) 상관계수를 보여주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어서 SPAI의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가 SPAI 차이점수의 대용 점수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SPAI 차이점수와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가 .93( $p < .001$ )으로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집단간 비교**

한국판 SPAI가 사회공포증 집단과 사회불안이 낮은 정상 집단을 얼마나 잘 변별하는지를 알아보았다. SAD 점수 상위 25% 집단에 대해 ADIS-R(DiNardo, et al., 1985)을 사용하여 면접하여 DSM-III-R(APA, 1987)의 사회공포증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집단(21명)을 사회공포증 집단이라 하

표 4. SPAI와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

	SPAI	IAS	SAD	평균	표준편차
SPAI				57.02	24.55
IAS	.72**			44.33	9.62
SAD	.68**	.83**		79.02	16.73
FNE	.37**	.46**	.33**	38.80	8.51

SPAI = 사회공포증과 불안 검사; IAS = 대인관계 불안 척도 SAD = 사회적 회피 및 불안감 척도 FNE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  $p < .001$

표 5. 집단별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회공포증 집단(N=21)		정상 집단(N=2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SPAI	89.84	9.98	26.28	8.73
SAD	99.97	8.86	57.76	7.64

SPAI = 사회공포증과 불안 검사; SAD = 사회적 회피 및 불안감 척도

였다. SAD 하위 25% 집단(29명)을 정상 집단으로 하였다. 사회공포증 집단과 정상 집단의 SPAI 점수 및 SAD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SPAI 점수는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에서 광장공포증 소척도 점수를 감한 차이점수이다. 사회공포증 집단과 정상 집단의 SPAI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48) = 6.83, p < .001$ .

###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DSM의 진단범주에 포함된 사회공포증을 효율적으로 변별 진단하는 평가 도구로 알려진 SPAI의 한국판을 개발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Turner, Beidel 등(1989)이 DSM-III의 진단 증거에 근거하여 개발한 SPAI를 번안하여, 한국판 SPA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한국판 SPAI의 신뢰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는 대체로 심리측정학적으로 만족할 만하였다. SPAI를 구성하는 사회공포증 소척도와 광장공포증 소척도는 모두 Cronbach의  $\alpha$  계수가 높게 나와 높은 내적 합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문항과 총점간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만족할 만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

과들은 한국판 SPAI가 신뢰도가 높은 평가 도구를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판 SPAI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K-SPAI는 2개의 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 두 요인은 SPAI를 구성하는 원래의 소척도인 사회공포증 소척도와 광장공포증 소척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SPAI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요인분석 결과와 일치한다(Clark et al., 1994; Osman et al., 1995, 1996; Turner, Stanley, et al., 1989). 그리고 사회공포증을 다른 불안장애들로부터 효율적으로 감별 진단하기 위해, SPAI를 사회공포증 소척도와 광장공포증 소척도로 구성된 Turner, Beidel 등(1989)의 목적에 잘 부합되는 것이다.

한국판 SPAI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사회불안을 평가하는 다른 한국판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SPAI는 사회불안 관련 평가 도구들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한국판 SPAI는 성향적 사회불안을 평가하는 한국판 SAD 및 한국판 IAS와 높게 상관되었다. 한국판 SPAI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평가하는 한국판 FNE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IAS나 SAD와의 상관계수보다는 낮았다. 본 연구에서 나머지 세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수에 비해, FNE가 세 척도와 각각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보인 결과는 이점윤과 최정

훈(199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한국판 SPAI가 IAS나 SAD에 비해, FNE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이유는 FNE가 나머지 세 척도와 측정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SAD, IAS 및 SPAI는 모두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 여러 증상들을 직접 측정하는 평가 도구이다. 반면에 FNE는 사회공포증의 중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인 특정한 사고를 측정하는 인지적 평가 도구이다(Elting & Hope, 1995). 즉 FNE는 사회공포증 증상들을 포괄하여 평가하기보다는, 사회불안의 핵심 인지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평가한다. FNE의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SPAI가 SAD나 IAS에 비해 FNE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타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SPAI는 사회공포증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변별력 있게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DSM-III-R의 사회공포증 진단준거에 부합하는 대학생 집단을 사회공포증 집단으로 분류하여,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과 SPAI 점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판 SPAI는 사회공포증 집단과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SPAI의 타당도를 검토한 본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한국판 SPAI가 사회불안을 타당하게 평가하는 측정 도구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국판 SPAI의 타당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다른 검사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 결과만으로 새로 개발된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상관관계를 검토한 척도들은 모두 사회불안 관련 척도들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만을 검토하고 변별타당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한국판 SPAI의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사회공포증 집단은 DSM-III-R의 사회공포증 진단준거에 부합되었지만, 사회공포증 문제로 치료를 받은 경험은 없는 대학생 집단이었다. 한국판 SPAI의 변별력에 대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사회공포증 집단이 일반 임상집단은 아니었다는 제한점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만으로 한국판 SPAI의 타당도를 입증하였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평가하는 도구는 사회공포증의 치료효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SPAI는 사회공포증의 치료효과를 민감하게 측정한다고 시사되었다(Beidel et al., 1993; Cox et al., 1998; Hofman, 2000).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SPAI가 사회불안의 치료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는지를 검토하지 못하였다. SPAI가 사회공포증의 치료효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한국판 SPAI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판 SPAI가 사회불안의 치료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SPAI, 한국판 IAS, 한국판 SAD 및 한국판 FNE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미하지만 서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는 SAD, IAS, SPAI 및 FNE 등이 측정하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SPAI와 Mattick과 Clarke(1989, 1998)가 개발한 SPA나 SIAS와의 관계를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전에 Ries 등(1998)의 연구에서 SPAI 점수는 SPS와는 .64, SIAS와는 .75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 수치는 본 연구에서 한국판 SPAI가 한국판 SAD나 한국판 IAS와의 상관관계에서 보인 수치와 유사하다. 앞으로 한국판 SPAI와 국내에서 사회불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다른 척도

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불안 관련 척도인 SAD, FNE, IAS, SPAI, SPS, 및 SIAS 등이 각각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더 명확하게 비교하는 연구도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판 SPAI가 사회공포증과 사회불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뢰도가 높고 타당한 측정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Turner, Beidel 등(1989)이 DSM- III의 사회공포증 진단준거를 근거로 하여 SPAI를 개발하였으므로, 한국판 SPAI는 이전에 개발된 다른 사회불안 측정도구들에 비해 사회공포증을 평가하는데 더 유용할 것이다. SPAI가 공황발작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불안감을 배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공포증과 다른 불안장애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감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못하였지만 선행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한국판 SPAI는 사회공포증의 치료효과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집단이 대학생 집단이었으므로, 한국판 SPAI는 특히 대학생 집단의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의 평가 및 연구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SPAI 차이점수와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사회공포증 소척도 점수를 SPAI 차이점수의 대응 점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검사의 타당도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야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판 SPAI의 타당도를 더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임상적 사회공포증 집단에 대한 연구나 여러 연령층의 일반인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더 많이 있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남재 (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73-81.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윤, 최정윤 (1997). 한국판 사회 공포증 척도 (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51-26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 revis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Washington, DC: Author.
- Barlow, D. H. (1988).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New York: Guilford.
- Beidel, D. C., Borden, J. W., Turner, S. M., & Jacob, R. G. (1989).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Concurrent validity with a clinic samp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 573-576.
- Beidel, D. C., Turner, S. M., & Cooley, M. R. (1993). Assessing reliable and clinically significant change in social phobia: Validity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331-337.
- Beidel, D. C., Turner, S. M., & Dancu, C. V. (1985). Physi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109-117.

- Brunello, N., Boer, J. A., Judd, L. L., Kasper, S., Kelsey, J. E., Lader, M., Lecrubier, Y., Lepine, J. P., Lydiard, R. B., Mendlewicz, J., Montgomery, S. A., Racagni, G., Stein, M. B., Wittchen, H. (2000). Social phobia: diagnosis and epidemiology, neurobiology and pharmacology, comorbidity and treat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0*, 61-74.
- Clark, D. B., Turner, S. M., Beidel, D. C., Donovan, J. E., Kirisci, L., & Jacob, R. G. (199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adolesc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6*, 135-140.
- Cox, B. J., Ross, L., Swinson, R. P., & Dorenfeld, D. (1998). A comparison of social phobia outcome measures in cognitive-behavioral therapy. *Behavior Modification, 22*, 285-297.
- DiNardo, P. A., Barlow, D. H., Cerny, J., Vermilyea, B. B., Vermilyea, J. A., Himadi, W., & Waddell, M. (1985). *Anxiety Disorders Interview Schedule—Revised*. Albany, NY: Phobia and Anxiety Disorders Clinic,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Elting, D. Y., & Hope, D. (1995). Cognitive assessment.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Gore, K. L., & Parker, C. S. (2002). Predictive anxious response to social challenge: the predictive utility of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in a college popul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689-700.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Heimberg, R. G., Hope, D. A., Rapee, R. M., & Bruch, M. A. (1988). The validity of the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nd the Fear of the Negative Evaluation Scales with social phobic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 407-410.
- Heimberg, R. G., Mueller, G. P., Holt, C. S., Hope, D. A., Liebowitz, M. R. (1992). Assessment of anxiety in social interaction and being observed by others: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Behavior Therapy, 23*, 53-73.
- Hofman, S. G. (2000). Self-focused attention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717-725.
- Kessler, R. C., McGonagle, K. A., Zhao, S., Nelson, C. B., Hughes, M., Eshelman, S., Wittchen, H. -U., & Kendler, K. 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Leary, M. R. (1983a).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6-75.
- Leary, M. R. (1983b).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6.
- Leary, M. R., & Kowalski, R. M. (1993). The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Construc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136-146.
- Liebowitz, M. R., Gorman, J. M., Fyer, A. J., &

- Klein, D. (1985). Social phobia: Review of a neglected anxie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729-736.
- Mattick, R. P., & Clarke, J. C.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Unpublished manuscript.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Oei, T. P., Kenna, D., & Evans, L. (1991).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utility of the SAD and FNE scales for anxiety disorder pati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1-116.
- Osman, A., Barris, F. X., Haupt, D., King, K., Osman, J. R., & Slavens, S. (1996).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uture validation in two nonclinical sampl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8, 35-48.
- Osman, A., Barris, F. X., Aukes, D., & Osman, J. R. (1995).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235-243.
- Peters, L. (2000).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SPAI), the social phobia scale (SPS) and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943-950.
- Rapee, R. M. (1995). Descriptive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Ries, B. J., McNeil, D. W., Boone, M. L., Turk, C. L., Carter, L. E., & Heimberg, R. G. (1998). Assessment of contemporary social phobia verbal report instrum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983-994.
- Schneier, F. R., Johnson, J., Hornig, C. D., Liebowitz, M. R. & Weisman, M. M. (1992). Social phobia: Comorbidity and morbidity in epidemiologic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 282-288.
- Turner, S. M., Beidel, D. C. (1988). Some further comments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 411-413.
- Turner, S. M., Beidel, D. C., Dancu, C. V., & Stanley, M. A. (1989). An empirically derived inventory to measure social fear and anxiety: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 35-40.
- Turner, S. M., McCanna, M., & Beidel, D. C. (1987). Discriminative validity of the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5, 113-115.
- Turner, S. M., Stanley, M. A., Beidel, D. C., & Bond, I. (1989).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1, 221-234.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Weiller, E., Bissierbe, J. -C., Boyer, P., Lepine, J. -P.,  
& Lecrubier, Y. (1996). Social phobia in  
general health care: An unrecognized untreated  
disabling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169-174.

원고접수일 : 2004. 2. 16

게재결정일 : 2004. 9. 24

K C I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Kim, Nam Jae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self-reported scale to assess social phobia and anxiety. This study translated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SPAI) in Korean and explor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the SPAI (K-SPAI). The K-SPAI has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high test-retest reliabilit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a two-factor solution can be derived from the K-SPAI. The factors correspond to the original subscales: the Social Phobia subscale and the Agoraphobia subscale. The K-SPAI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K-IAS, K-SAD, and K-FNE. Socially phobic students classified by DSM-III-R diagnostic criteria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the SPAI than their non-socially anxious counterpar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Korean-version of the SPAI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to assess social phobia and anxiety.

*Keywords* : Social Anxiety, Social Phobia, Reliability, Validity